

전 세계에 K-푸드 전파... '수출 200억달러' 시대 앞당긴다

'서울푸드 2026' 개막

KOTRA 주최, 오는 12일까지 운영 국내 최대·아시아 4대 식품 전시회 49개국·1800개사·3400개 부스 규모 美, 주빈국 자격으로 공식 참가 288개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회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푸드 2026'이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K-푸드 수출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서울푸드를 발판 삼아 농식품 수출 200억달러 시대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하는 '서울푸드 2026'이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1·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4회를 맞은 서울푸드는 국내



서울푸드 2025 현장 모습.

/서울푸드

최대이자 아시아 4대 식품산업 종합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K-푸드 수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온 이번 전시회에는 49개국 1800개 기업이 참가해 총 3400개 부스를 운영하며 식품산업 최신 트렌드와 미래 기술을 선보인다.

최근 K-푸드의 글로벌 인기는 수출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5월 기준 누적

수출액이 5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며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미국의 주빈국(Country of Honor) 참가다.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4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 측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 전시회 가운데 서울푸드에 유일하게 주빈국 자격으로 공식 참가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관에서는 육류와 견과류, 스낵류를 비롯해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식품 원료와 혁신 제품들이 소개된다.

서울푸드는 단순 전시회를 넘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878건의 상담을 통해 5억3618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46개국 288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가 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KOTRA는 약 5000건의 상담과 6

억5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목표로 국내 식품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에는 중국·베트남·대만 등 아시아 주요 시장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글로벌 커머스 데이'가 열렸으며, 10일에는 쿠팡과 그립(Grip)이 참여하는 특별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11~12일에는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참가 기업들의 국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K-푸드는 이제 단순한 식품 수출을 넘어 우리 산업 경쟁력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 시장에 전파하는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서울푸드가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K-푸드 수출 확대와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농협, 도농상생 무이자자금 3771억 마련

올해 총 8900억 자금 지원 예정 수급불안 등 경제사업 손실 보전 사업활성화·경쟁력 강화에도 활용

농협이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금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는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목적의 '도농상생기금' 3771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는 총 11명으로, 도시농축협 조합장 8명과 관련부서장 3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5일 상생협력위원회가 개최됐다.

도농상생기금은 도시농축협의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이어져 온 이 기금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올해는 이번에 지원하는 3771억원을 포



도시농축협 조합장 등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들.

함해 총 8900억원의 기금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농축협은 이번 지원받은 기금을 활용해 농축산물 수급불안, 가격 등락, 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제사업 손실 보전에 나선다. 또 농축산물 판매·유통의 사업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도 자금을 활용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병길 안양농협 조합장은 "전국의 도시 농축협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도농 상생을 위해 기금 출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도농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농상생기금을 지속 확대해 교류와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기대, '디지털 경제 직업훈련' 석사 신설

국제노동기구와 전문가 양성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손잡고 디지털 경제 시대를 이끌 글로벌 직업훈련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한국의 산업현장 연계형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모델과 디지털 혁신 역량을 세계 각국에 확산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기대는 ILO 산하 국제훈련센터(ITC ILO)와 공동으로 2027년 1월 디지털경제 직업기술교육훈련 석사과정(Master's Program in TVET for the Digital Economy)'을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ITCILO가 자국 외 해외 고등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개설하는 첫 정규 학위과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국제대학인 한기대 교육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2027년 첫 입학생으로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총 30명의 국내외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위과정은 한기대 산업대학원 소속 1년 집중 석사학위 과정(총 30학점)으로 운영된다. 졸업생에게는 한기대 이학석사(Master of Science, M.Sc.) 학위가 수여되며, 학위증에는 ITCILO의 인증이 표기된다.

교육은 온라인 이론 학습, 한국 대면 교육, 캡스톤 프로젝트 등 3단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성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ITCILO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6월 말부터 8월까지 한기대 캠퍼스에서 6주간 집중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9월~12월까지는 각국의 직업훈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캡스톤 프로젝트나 실무형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AI)과 마신러닝을 단순한 이론 공부를 넘어 생성형 AI, AI 기반 학습 도구 등 실제 교육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대면 교육 기간에는 가상 실험실과 시뮬레이션 등 첨단 에듀테크를 직접 경험하고, 국내 직업훈련기관과 산업체 현장견학을

통해 한국형 교육모델을 배우게 된다.

교수진으로는 한기대 교수진을 비롯해 ITCILO·ILO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고용·노동 정책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해 실무 중심 교육을 이끈다. 양 기관은 동수로 구성된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한기대가 맡아 학사 운영과 한국 대면교육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직업훈련 교·강사, 교육·고용 분야 정책 담당자, 산업계 및 노사단체 관계자 등이며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한국은 산업현장과 교육을 긴밀히 연결해 인재를 양성해 온 직업능력개발 강국"이라며 "한국형 TVET 모델이 각국의 산업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노동 분야의 국제 지식 공유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석사과정은 전면 영어로 운영된다. 학생 모집은 6월 30일 1차 접수를 시작으로 2차(9월 28일), 최종(11월 30일) 마감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은 ITCILO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어촌 개발대상지 16곳 선정

신규 대상지에 태안·고창·삼척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력 목표

해양수산부가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권역 단위 거점개발 10개소와 ▲시·군 역량강화 지방정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개소는 충남 태안군 송현1리, 전북 고창군 삼원면, 전남 진도군 용동, 전남 완도군 청산동, 전남 신안군 자은·한운, 경남 통영시 신봉, 경북 영덕군 축산, 경남 거제시 가배, 제주 제주시 상명리, 제주 서귀포시 신봉·삼달이다.

시·군 역량강화 지방정부 6곳은 강원 삼척시, 전남 장흥군, 충남 태안군, 경남 거제시, 전북 부안군, 경남 남해군이다.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공모 접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지난 5월 서류평가와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내실 있는 사업자를 엄선했다. 선정된 사업에는 유형에 따라 향후 5년간 맞춤형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인천 초·중고 학생 대상 골프 꿈나무 육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 운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익 골프대회 운영을 통한 인천지역 골프 꿈나무 지원·육성에 한창이다.

공사 주관의 '제3회 드림파크CC 사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가 지난 8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CC에서 개최됐다.

지역 골프 꿈나무 육성과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 대회에는, 인천광역시골프협회에 등록된 초·중·고 학생선수 115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드림파크CC 드림코스에서 진행됐고 18홀 최저타 경기(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운영됐다.

공사는 "특히 이번 대회에선 전국 단위 학생골프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대표선발·

해수부는 특히 각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 기반 시설과 소득 기반 시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월 관련 사업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해당 어촌 지역에 다목적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공동작업장·지역 음식판매장, 마을 경관 정비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사업들이 제안됐다.

이번에 선정된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개소에는 5년간 총 443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소득증대 시설 조성을 통해 어촌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군 역량강화로 선정된 지방정부 6곳에는 1년간 총 약 8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각 지방정부는 마을 컨설팅,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게 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 단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어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인천 서구 드림파크CC에서 열린 '제3회 드림파크CC 사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등에 활용되는 포인트가 부여되면서, 참가 선수들에게 의미 있는 경쟁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경기 직후엔 초등부·중등부·고등부 남녀 부문별 우승·준우승·3위와 종합 최우수상 시상식이 열렸다. 총 1000만원의 장학금과 트로피, 시상품 등이 수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